

태생굴(*Ostrea circumpecta*, Pilsbry 1904)의 보육낭 내 유생관찰

강도형 · 최광식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부

서론

대부분의 해산무척추동물의 번식은 정자와 난을 해수중으로 내보내어 체외수정을 통해 부유유생의 시기를 거치는 반면 일부 저서성 무척추동물에서는 체내유생발생 또는 보육보호의 번식습성을 지닌 종들의 생태학적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Strathmann and Strathmann, 1982; Olive, 1985). 이와 같은 번식습성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서식환경에 따른 번식전략의 적용기작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Levin & Bridges, 1995). 우리나라에 보고된 굴과(Ostreidae)의 종들 중 보육습성을 가진 굴들은 태생굴(*Ostrea circumpecta* Pilsbry)과 벗굴(*O. denselamellosa* Lischk)로서 이 연구의 대상종인 태생굴은 제주도에 널리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태생굴 유생의 관찰, 보육낭의 위치, 유생발달시기 및 유생 내 기관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태생굴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태생굴은 2001년 6월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쪽에 위치한 문섬에서 채집하였다. 채집 후 태생굴은 실험실로 옮기고, 패각을 조심스럽게 열어 연체부를 Davison's fixative에 고정하고 조직학적 방법에 이용하였다. 48시간 고정된 연체부는 성체조직과 유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소화맹낭, 생식소, 아가미 및 외투막이 모두 포함되게 하여 1-cm의 두께로 절개하였다. 절편된 연체부는 탈수과정과 파라핀침투과정을 거쳐 파라핀블럭을 만들었다. 조직이 박힌 파라핀블럭은 마이크로톰을 이용하여 5 μm 의 두께로 절편하고 조직슬라이드를 제작한 후, Harris' Hematoxylen과 Eosin Y 용액으로 비교염색하였다. 태생굴 내의 생식소의 상태, 보육낭의 위치, 유생의 모양, 유생 내 기관의 발달 상태 등을 현미경 상에서 관찰하였다.

결과 및 요약

실험에 사용된 개체들 모두 자웅이체였다. 생식소는 수컷이 우유빛, 암컷이 밝은 노란색을 띠었다. 정소는 휴지기의 상태로서 방정 후 남아 있는 정자를 관찰할 수

없었다. 난소에는 66.5 μm 에서 119.4 μm 의 크기를 가지는 성숙한 난과 식세포작용에 의해 재흡수되는 퇴행난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보육낭의 위치는 세실하부(subbranchial chamber)이며, 보육되는 유생들은 대부분 trochophore나 초기 veliger 유생들로서 114.8 μm 에서 133.5 μm 정도의 크기를 가졌다. 대부분의 유생들은 섬모와 면반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veliger 유생에서 관찰되는 체내기관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달기였으나 구강, 위, 장과 같은 기본적인 먹이섭취 및 소화기관은 형성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Levin, L.A. & T.S. Bridges. 1995. Pattern and diversity in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In "Ecology of marine invertebrate larvae" (L. R. McEdward, eds.). CRC Press. New York. 1: 1-48.
- Olive, P.J.W. 1985. Covariability of reproductive traits in marine invertebrates: Implications for the phylogeny of the lower invertebrates. In "The Origins and Relationships of Lower Invertebrates". Clarendon, Oxford. Pp. 42-59.
- Strathmann, R.R. and M.F. Strathmann.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size and brooding in marine invertebrates. Am. Nat. 119: 91-101.